

지역 소식통

고창군, 온라인직거래 기반육성 지원사업 선정

고창군이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고창농협조합공동법인·황토배기유통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온라인 직거래지원센터' 조성, 운영, 영상 장비·컨설팅·홍보·고객관리·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장비 컨설팅, 홍보, 고객관리, 운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창군은 사업공고 시점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긴밀히 대응해 왔다.

그간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고창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황토배기유통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실시

부안군은 27일 위축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집중 지급기간'을 두고 3월 29일까지 부안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총 516개 마을에 직접 찾아가는 신청·배부활동을 진행하여 민생안정지원금의 파급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지급기간중 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균비로 환수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답성놀이, 윤달 '인기 급상승'

'고창읍성, 윤달 옛새날 효험 더 좋아' ... 3월27일·4월6일·4월16일 방문객 급증 기대

올해 윤달(3월22일~4월19일)이 시작되면서 고창군 고창읍성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25~26일) 고창읍성을 찾는 내·외지의 방문객이 급증하며 윤달 전설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고창읍성(사적 제45호)은 1453년(조선선조 26년)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성으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읍성 중 하나이다.

고창읍성에서는 옛날부터 돌아나 곡식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고 도는 답성놀이를 해왔다. 특히, 극락문이 열리는 윤달의 답성놀이와 관련 한 바퀴를 돌면 다행이 나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사후에 극락왕생 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윤달 중에서도 옛새날이 효험이 더 좋다고 전한다. 특히 '옛새'인 오는 3



월27일과 '옛새'인 4월6일 '스무 옛새날'인 4월16일에는 답성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고창읍성은 축성 당시 호남지역의 19개 현군이 참여하여 성곽 외곽으로 이를 증명하는 각자성석을 확인 할 수 있는 성 밖 돌레길을 돌아볼 수 있다. 성곽을 따라 걸다 보면 당시 사람들의 유비무환의 슬기와 탁 트인 고창 읍내 시가지의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옛새, 열여섯, 스무옛새날에 고창읍성을 한 바퀴 도는 신축순 200명에게 건강 떡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며 "극락문이 열리는 윤달에 고창읍성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업 기반 시설사업 영농기 전 마무리 해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가뭄 대비 용수공급 대책 수립·보철 산불 예방 총력도 당부

이학수 시장이 27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농·배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뭄 등 기상여건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전 용수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



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외활동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강풍 탓에 산불 발생이 늘어난다"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년 연속 선정

부안군은 대령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대상지로 부안군 상서면 우덕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여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상서면 우덕마을은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가 많고 공동체의 단합력과 활동력이 뛰어난

마을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거점모델이 될 수 있는 마을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상서면 우덕마을은 앞으로 4년간 총14.6억원(국비 10.8억, 도비 1.1억, 군비 2.7억)을 투입해 마을안길정비, 노후 담장정비, 마을회관 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책 정비, 유흥공간을 활용한 복지관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진서면 왕포마을과 백선면 회

포마을 사업을 완료 하였고, 올해 선정된 상서 우덕마을을 포함해 현재 2019년부터 5개년 연속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총 5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년 선정된 상서면 우덕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대상마을을 발굴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위메프 오' 가맹점 신청하세요

정읍시, 시민·상공인 모두 혜택 주는 공공 배달앱 추진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정읍형 공공 배달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공공 배달앱 '위메프 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수) 위메프 오(대표 하재욱)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배달앱 사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위메프 오'는 가맹점 중개수수료가 2%로 6~15%대에 이르는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고, 가맹비 없이 입점할 수 있어 가맹점들의 경영 부담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할 때는 카드수수료와 달리 결제(PC)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입 소비자에게는 정읍사랑상품권을 결제 수단과 연계해 10% 할

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1%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첫 주문 합인과 특정요일 합인 쿠폰, 배달비 합인 등 각종 이벤트와 합인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 오'는 오는 5월 1일 서비스 오픈 예정이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접수들은 인터넷 '위메프 오 파트너스'를 검색해 입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공 배달앱 사업이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소비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희망2023나눔캠페인 최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희망2023나눔캠페인'에서 전라북도 내 1위를 차지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패와 함께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희망2023의 나눔캠페인 동안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역대 모금 기록을 경신하며 7억4300만원을 모금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어려운 시기에도 고창군의 기업, 기관, 그리고 고창군민들의 나눔 참여 열기 덕분에 지난 2020년 1위에 이어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했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고창군은 3억이라는 목표액 대비 248% 초과 달성함으로써 고창군 지역 전반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줬다"며 "나눔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해준 고창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민들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받은 3000만원의 인센티브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보건소, 농어촌지역 공공보건의로 환경 개선

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증진과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도비 등 총 12억 9천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DR) 등 최신 의료 장비 10종 13대와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실 장비 2종 2대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위해 구강보건 이동 차량을 구입하고 보건소 승강기를 교체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